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影響을 주는 要因에 關한 研究*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를 中心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Focussed on the Sex and Birth-Order of Childen—

忠北大學校 家政教育科

助 教 授 鄭 鈴 淑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ong Poo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Young Sook Chong**

明知大學 家政學科

副 教 授 李 喜 子

Dept. of Home Economics, Myong Ji University

Associate Prof., **Hee Ja Lee**

<目 次>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2. 理論의 背景
3. 假說의 設定

II. 研究方法

1. 研究設計

2. 資料分析 方法

III. 研究結果

1. 研究對象兒의 一般의 狀況
2. 假說의 檢證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rious factors which affect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the study aims at finding out how the variables possessed by father side operate on his child-rearing attitudes according to the sex and birth-order of children.

Hence, the study is carried out on the hypothesis that father's variables such as age, education, occupation, religion, etc. show different aspects on child-rearing attitudes by way of a child's sex and birth-order.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factors that affect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re child's variables such as sex and birth-order as well as father's variables such as education, occupation and religion. Describing these factors in detail, the study shows that father has higher concern on daughter rather than on son; the higher education he has, the higher his concern is; and when father has a white-collar job or is a Christian, he shows higher concern on his children.

* 本論文은 197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The above mentioned factors are analyzed and classified as follows by the child-rearing contents:

- A. The factors which affect father's concern one his children are: 1) sex, 2) father's education and 3) occupation related to the sex and birth-order of children.
- B. The factors which affect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are; 1) sex, 2) birth-order, 3) father's education, 4) occupation and 5) religion related to the sex and birth-order.
- C. The factors which affect father's disciplinary attitudes (praise or scolding) are; 1) sex, 2) father's education and 3) religion related to the sex and birth-order.
- D. The factors which affect father's ways of child-rearing are; 1) sex in permissive attitudes, 2) father's education related to sex, and 3) sex in terms of negative attitudes.
- E. Finally, father's age is proved to be a factor that does not give any significance in his child-rearing attitudes.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아버지-子女 關係를 통하여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影響을 주는 諸要因을 밝혀 내려는 것이다. 즉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서 아버지가 지닌 變因들이 그의 養育態度에 어떻게 作用하는가를 찾아내려는 데에 이 研究의 目的이 있다.

이 研究를 시작하게 된 動機는 李喜子和 鄭鈴(1979)의 研究에서 아버지가 子女에 對하여 갖는 養育態度가 子女의 性別 또는 出生順位別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면서, 次後의 研究課題로 아버지의 養育態度 次元에 作用하는 諸要因을 더욱 具體적으로 研究할 것을 提示한 데에 있다.

父母의 養育態度는 子女의 人性, 學業成就度, 情緒的 安定感, 道德性, 社會性 發達과 相關이 높다는 研究들이 많이 報告되었다(Sears et al., 1957; Becker, 1964; Monroe, & Monroe, 1972, 1975; Kohlberg, 1969; Brim, 1952; Hoffman, & Saltzstein, 1967). 또한 어머니와 子女間의 關係를 밝힌 研究들은 外國文獻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韓國에서도 劉永珠(1971), 李기현(1974), 鄭貞順과 金明分(1972) 등의 論文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子女間의 關係에 對하여 더욱 關心을 가지고 활발하게 研究하게 된 것은 外國에서는 1960年代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最近의 경향이다(서봉연, 1973; 김광웅, 1978; 이은순 1974; 이남기, 1979; 이희자와 정영숙, 1979; 이정숙, 1979).

아버지의 役割과 아버지와 兒童養育과의 關係를 研究하게 된 것은 産業社會속에서 아버지들이 社會人으로서의 役割에만 止중하여 子女養育 및 教育의 問題에는 소홀하게 對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實利主義의 思考가 지배함으로써 아버지들이 家庭 밖에서 바쁘게 生活하게 되었고, 子女에 대한 關心이 적어지고 대부분의 子女養育 問題를 어머니에게 委任하였으므로 아버지는 兒童發達의 여러 侧面에 거의 바람직한 作用을 하여주지 못하였다. 더욱이 女性들도 차츰 社會活動에 대한 參與도가 증가함으로써 子女養育의 問題를 전담하는 것은 不可能하게 되었으므로, 父母가 함께 子女問題를 共同 關心事로 나누어 맡지 않으면 안되도록 現代의 家庭生活의 性格은 점차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子女에 對하여 關心을 더 갖도록 하며, 바람직한 養育態度를 形成해야 한다는 意見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研究結果들이 分明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즉 外國에서 이루어진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影響-특히 子女의 人性發達에 주는 影響-에 관한 研究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버지의

影響이 어머니의 影響보다 弱하거나 덜 重要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子女養育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愛情의 일 때 男女兒 모두 社會性이 높았고, 性役割을 잘 發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說明하였듯이 아버지는 子女養育에 있어서 중요한 影響을 미치며, 그것은 養育態度로서 傳達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子女에 대한 養育態度를 決定시켜주는 變因들이 무엇인지 밝혀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家父長 중심의 直系家族에서는 傳統約으로 子女의 性과 出生順位에 따라 子女養育에 差異를 두었으므로, 요즈음에 兒童變因인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하여 아버지變因이 養育態度에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內容別로 研究할 必要性이 있다고 본다.

이 研究를 통하여 아버지의 子女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養育態度를 갖도록 하는 契機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 研究를 시작하였다.

2. 理論의 背景

아버지의 養育態度가 兒童發達에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가를 研究한 先行研究를 中心으로 考察한 바,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와 아버지 養育態度의 相關된 內容을 중점적으로 整理하여 本 研究의 理論의 背景으로 하였다.

Winder와 Rau(1962)의 研究에 依하면 아버지는 傳統約으로 男兒의 攻擊의 行動에 對해서 女兒보다 處罰을 덜하고, 오히려 激勵하는 便이며, 活動의이고 攻擊의인 男兒의 아버지는 愛情의이고 子女의 行動에 對한 補償을 잘 해주며 男性的인 性役割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eckenridge, & Vincent, 1965, p.141). 또한 Sears, Rau와 Alpert(1965b)는 특히 아버지가 子女의 性的, 攻擊의 行動에 對하여 制裁 또는 抑壓할수록 男女兒 모두가 女性化된다고 하였다. Sears 등은 아버지의 制約이 子女를 女性화시키는 機制로서 男兒에게는 活動을 抑制시키는 것이며, 女兒에게는 男性的인 活動을 抑壓시키는 것으로 보았다(李 藝英, 車 載浩, 1974, p.29).

또한 Mussen과 Rutherford(1963)의 研究에 依하면 女性다운 딸의 아버지는 딸로 하여금 더 女性的으로 行動하기를 권장하며, Goodenough(1957)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딸의 性役割 發達에 影響을 준다는 見解를 지지하였다(Lamb, 1976, p.122). 그리고 Maccoby(1962)의 研究에 依하면 男性的인 人性特徵이 결여된 男子大學生의 대부분은 兒童期에 몇년간 아버지와 別居를 했거나 別居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와 關係가 원만치 못하여 自身의 問題를 議論한 일이 거의 없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주 아버지로부터 體罰을 받았던 經驗이 있는 경우였다고 報告하였다(金光雄, 1978, p.9).

한편 Hoffman(1960)은 아버지와 溫情의이고 긍정적인 關係를 가진 아들은 自信心이 높고, 同僚間에 認定을 받으며, 獨立의이며, 體力과 知的能力이 높고, 現實의이고 좌절상태를 잘 克服하는 등의 特性을 갖고 있는 反面에 어머니와 溫情의 關係를 가진 아들은 溫順하고 조용하지만 以上の 特性과는 아무 相關이 없다는 것을 提示하였다(Brechenridge, & Vincent, 1965, p.140). 또한 精神의으로 成熟된 男兒들은 溫情의이고 道德의인 아버지와 關係가 높고, 그리고 아버지와 滿足스럽지 못한 關係를 가진 男兒들은 특히 거절감과 不幸을 느끼고, 自尊心도 낮으며, 衝動的이고 內向의인 性格을 갖는다고 하였다(Lamb, 1976, p.109).

Bronfenbrenner(1961, a)의 研究에서 아버지는 一般的으로 男兒보다 女兒에게 더욱 愛情의이고, 罰을 덜 받기를 기대하며, 女兒가 愛情의인 訓育을 받을 경우 順從의이며 더욱 協同의이고 比較의 같은 나이의 男兒보다 社會的인 反面에, 拒否의 態度에 對해서는 더욱 수줍고 不安해 하며 依存的 性格을 갖는다고 하였다((Craig, 1979, p.413).

劉永珠(1979, p.142)는 그의 著書에서 아버지는 가운데는 專制的, 傳統의인 아버지와 民主的인 아버지의 두가지 類型이 있으며 下流階層의 아버지일수록 傳統的 權威의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Williamson, 1970, p.444). 上流階層의 아버지는 女兒가 男兒보다 主로 責任感과 社會的 適應이 뛰어나기를 기대하며, 中下流階層의 아버지는 男兒가 指導力, 期待水準, 競爭力 같은 特性에서 女兒보다 優勢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Craig, 1979

p.413).

Brim(1952)은 그의 研究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기 아들과 딸에 對해서 養育態度를 달리하였는데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嚴格한 便이라고 報告하였다(Stein et al., 1979, p.230). Emmerich(1962)는 父母들은 異性の 子女보다 同性의 子女에게 더욱 權威의이고 支配的인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子女들은 性에 關係없이 모두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有能하고 子女에 對해서는 더욱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는 研究도 報告되었다(Kagan, & Lemkin, 1960). Burchinal(1958)은 父母가 同性의 子女나 異性の 子女를 認定하는 데 있어서 差異가 없다는 것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Hubert와 Britton(1957)은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과 즐겁게 지내는 反面,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을 더 同一視하는 傾向이라고 하였다. 反對로 Medinnus(1962, a)는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을 덜 받아들인다고도 主張하였다(Brechenridge, & Vincent, 1965, p.140). 以上과 같이 子女의 性에 대한 父母의 養育態度에 있어서 서로 다른 研究結果가 提示된 것은 父母의 性과 子女의 性과 關聯된 研究에서 專門性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最近의 研究傾向에서 子女養育에 있어서 적어도 어머니가 子女行動問題와 關聯되는 만큼 아버지 亦是 子女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Paterson et al., 1961).

父子女關係에 關한 우리나라 研究中에서 李恩順(1974, pp.48~49)의 研究에 依하면 父의 役割中에서 子女의 訓育을 擔當하는 役割은 다른 役割보다 낮으나, 子女의 發達課業과 關聯된 役割內容에서는 職業選擇의 準備, 市民的 資質을 기르기 爲한 責任感 形成과 關聯된 內容은 잘 實施되고 있으며, 한편 子女의 身體發達에 대한 關心, 性教育, 異性交際에 關해서는 낮은 傾向을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金光雄(1978, p.16)은 父子間의 心理的 關係가 좋은 集團의 男兒는 그렇지 못한 男兒에 比해서 支配性, 情緒性, 安定性, 社會性, 思慮性 등이 높았으며, 父子間의 關係에서 物理的 接觸時間보다 心理的 關係가 보다 重要한 變因이며 만약 함께 지내는 時間이 아주 적더라도 서로 親密하고 함께

놀고 兒童이 아버지와 關係를 滿足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男兒의 人性形成에는 別다른 問題가 없을 것이라는 結論이 可能할 것 같다고 하였다.

李男基(1979, pp.49~50)는 父親不在의 缺損家庭에 있어서 아들은 딸보다 活動性은 아주 높은 傾向이나 男向性은 오히려 낮은 傾向이고 安定性, 社會性, 責任性, 思慮性, 優越性, 우울傾向, 不安傾向등은 差異가 없이 비슷한 傾向이며 父가 現存하는 家庭에 있어서는 아들은 딸보다 男向性和 優越性이 높은 傾向이고, 安定性, 活動性, 社會性, 責任性, 思慮性, 우울傾向, 不安傾向등은 差異가 없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李正淑(1979, p.92)의 研究에서는 아버지가 子女와 對話할 時間이 없고 子女와의 關係가 圓滿치 못할 경우, 子女들에게서 일어나는 問題點으로는 ①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同一視할 수 있는 機會가 적어지고, 어머니와의 結合이 더 강인하여 精神的인 面에 있어서 未成熟하며 女性化되어가는 傾向을 나타내고, ② 딸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아버지 役割을 行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輕減하는 傾向이 있으며 이러한 딸이 婚姻을 하였을경우 男便도 輕減하는 傾向이 있다는 등의 內容을 指摘하였다.

李喜子和 鄭鈴淑(1979 pp.97~98)의 研究에서 出生順位에 따른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도와 人性과의 相關은 아버지의 養育態度와 關心도가 높을 때 첫째아이는 安定性, 支配性, 思慮性, 社會性은 높아지고, 活動性 衝動性은 낮아지는 傾向이며 중간아이는 安定性, 支配性, 思慮性, 社會性은 첫째아子和 같이 높고 活動性과 衝動性은 첫째아子和 달리 높아진다. 즉 중간아이는 아버지에게 依하여 더욱 効果적인 자극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막내는 安定性, 支配性, 思慮性, 社會性이 높아졌다.

子女의 出生順位에 對해서는 아버지를 獨立的으로 出生順位와 關聯시켜 研究된 것은 거의 없었고 그러나 父母子女關係에서 出生順位와 相關시켜 研究된 內容은 많이 보고되었다.

Schachter(1959)는 父母의 養育態度가 子女의 性에 따라 다름으로써 子女의 行動에 있어서 差異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出生順位에 따라서도 差異

가 있는데, 첫째아이는 女兒처럼 父母의 많은 關心을 받으며 心理的 訓育을 받기 때문에 感情的이고 依存的 性格이 形成되고 反面에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더욱 攻撃的이고 自信감이 있다고 하였다(Breckenrige, & Vincent, 1965, p.143). 첫째아이에게는 父母가 子女養育에 對한 經驗不足으로 不安해하고 一貫性없는 養育態度와 과대한 關心을 가지며 一般的으로 첫째아이는 다른 兄弟들보다 權威的이고 責任감이 強하며 科學的 分野에서 탁월한 성취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Craig, 1979, p.399). Medinnus와 Johnson(1976, p.174)에 의하면 첫째아이가 知的能力이 높고 大學入學生의 數가 현저히 많으며(Altus 1965), 言語的 能力에 있어서도 첫째아이가 特別히 우수한 것은 父母들에 依한 言語的 자극이 크고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reland, 1973; Glass, Neulinger, & Brim, 1974).

父母가 나중아이에게는 첫째아이보다 養育의 經驗이 있음으로써 덜 不安해하며 一貫性 있는 養育態度를 갖지만 오히려 나중아이는 父母의 보호감독이 소홀하여 父母보다 그들의 兄弟나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Sutton-Smith, & Rosenberg, 1970). 나중아이는 첫째아이보다 말을 늦게 하는 편이며, 責任감이 없고 知的 成就性向이 낮으며, 운동경기에서 더욱 탁월하며 社交的이고, 社會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Craig, 1979, p.399).

趙福姬(1978, p.71)의 研究에서 막내는 동생의 出現으로 因한 경쟁의식도 없고 중간아이보다는 父母로부터 많은 注意를 받을 뿐만 아니라 成長할 때까지 家族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라 하였고, 만약 막내가 그 兄弟와 더불어 많다면 첫째아이와 같은 地位와 여건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Ston, & Church, 1968, p.153).

以上の 結果에서 아버지는 子女의 性과 出生順位에 따라 養育態度와 役期期待를 달리 하며 이것은 子女의 知的, 情緒的, 社會的 기타 人性發達에 있어서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假設의 設定

이 研究의 目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假說을

設定하고 이를 檢證하고자 한다.

假說;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 즉 年齡, 學力, 職業, 宗教가 달리 作用할 것이다.

副假說; 1.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2. 아버지의 子女養育에 대한 參與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3.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訓育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4.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方式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II. 研究方法

1. 研究設計

調査對象은 서울과 淸州의 公立 및 私立國民學校 5學年 兒童들이었다. 그들은 서울에서 451名, 淸州에서는 461名인데, 全體로 男兒가 500名, 女兒가 412名, 모두 912名이었다. 調査는 1978年 11월부터 약 1個月에 걸쳐서 研究者들이 作成한 質問紙로 하였다.

質問紙의 內容은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態度에 관한 調査內容으로, 주로 子女를 키우는 동안에 表現되는 子女養育態度를 關心, 養育에의 參與, 訓育, 養育方式의 4가지 見地에서 關係있는 設問을 모두 9個 選定하였다.

2. 資料分析 方法

4가지 內容에 대하여 各各 2~3個씩의 設問을 定하였는데, 그 應答는 예, 보통, 아니오의 세 단계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그것을 바람직한 것부터 3, 2, 1點의 點數로 환산하여 統計處理하였다. 內容別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와 아버지 變因인 年齡, 學力, 職業, 宗教를 相關시켜 變量分析을 하였으며, F檢定을 통하여 假說을 檢證하였다.

Ⅲ. 研究結果

1. 研究對象兒의 一般的 狀況

A. 兒童變因

研究對象兒를 性別로 보면 男兒가 500名, 女兒가 412名으로 男兒가 약 9% 정도 더 많았다. 出生順位로 보면 첫째 아이가 3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간 아이가 약 37%, 막내 아이가 25%의 분포를 보였다.

調査對象兒 중에서 家族數가 5~6名인 兒童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家族數가 7~8名인 兒童이 24%로 5人家族 以上이 모두 89% 정도였다.

兒童들 스스로가 자기집의 經濟狀態를 「보통」이라고 自覺한 경우가 81%로 가장 많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한 兒童이 13%, 「가난」하다고 생각한

兒童이 6% 정도였다(表 1). 本 研究에서 아버지가 子女에게 物質的으로 베푸는 것과 관련된 問題에서 貧困이 理由가 된 경우는 아주 적었으리라고 생각한다.

B. 아버지變因

研究對象兒 아버지의 變因인 아버지의 年齡, 學力, 職業, 宗教에 대한 分布가, <表 2>에 나타나 있다.

아버지 年齡은 40代(41~50歲)가 62%로 가장 많았고, 學力으로 보면 高卒 以上이 76%나 되었으며 大卒이 39%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職業은 公務員이 25%, 商業이 2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會社員으로 20%가 되었을 때, 채용기준이나 職業의 性格이 비슷한 公務員과 會社員을 포함하면 45%나 되었다.

아버지의 宗教分布를 보면 無宗教가 38%로 가장 많았고, 宗教를 가진 경우는 佛敎信者가 35%로 많았다. 基督敎와 天主敎는 各各 20%, 8%의

<表 1>

研究對象兒童의 變因

兒 童 變 因	集 團			計	N (%)
	男	女	計		
性	500 (54.82)	412 (45.18)	912 (100)		
出 生 順 位	첫째	중간	막내	計	
	348 (38.16)	334 (36.62)	230 (25.22)	912 (100)	
家 族 數(名)	3~4	5~6	7~8	9以上	計
	103 (11.29)	532 (58.33)	218 (23.90)	59 (6.48)	912 (100)
經 濟 狀 態	가난함	보통임	부유함	計	
	51 (5.59)	740 (81.14)	121 (13.27)	912 (100)	

<表 2>

研究對象兒 아버지의 變因

아 버 지 變 因	集 團						計	N (%)
	31~35	36~40	41~45	46~50	51~55	56以上		
年 齡	22 (2.41)	250 (27.41)	421 (46.16)	142 (15.57)	51 (5.60)	26 (2.85)	912 (100)	
學 力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大學院以上	計	
	16 (1.75)	97 (10.64)	103 (11.29)	231 (25.33)	354 (38.82)	111 (12.17)	912 (100)	
職 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計	
	32 (3.60)	59 (6.46)	212 (23.25)	228 (24.94)	179 (19.63)	202 (22.07)	912 (100)	
宗 教	基督敎	天主敎	佛敎	儒敎	없음	計		
	178 (19.52)	70 (7.68)	317 (34.76)	4 (0.44)	343 (37.60)	912 (100)		

分佈를 나타내었다.

2. 假設의 檢證

本 研究에서 設定한 假說은 李와 鄭(1978)의 研究를 통하여 一次의 으로 밝혀진 結論 즉 아버지가 子女에 대하여 갖는 養育態度 및 關心이 子女의 性別 및 出生順位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며, 아버지의 學力, 職業, 宗教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結論을 具體的으로 再確認하기 위한 것이었다.

李와 鄭(1979)의 先行研究에서는 養育態도와 養育關心을 알아보기 위하여 選定한 設問들을 가장 바람직한 점수부터 그렇지 않은 점수까지 3, 2, 1점으로 산출하고, 養育態도와 養育關心의 設問마다의 점수를 各各 總합산하여 要因別로 差異檢定을 하였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設問에 따라 相互 相殺하는 效果가 생기었고, 따라서 全體的인 傾向은 分明하게 알 수 있었으나 各 設問別로 나타난 結果를 正確하게 判斷할 수는 없었다.

本 研究에서는 아버지가 子女에 대하여 갖는 養育態도를 內容別로 4가지로 區分하고 相關이 높다고 생각하는 行動을 나타내는 設問을 各各 2~3個씩 決定하였다. 그것에 대한 應答인 예, 보통, 아니오를 바람직한 것부터 3, 2, 1點의 점수로 환산하여 兒童變因과 아버지變因을 관련시켜 統計的으로 有意檢定하였다. 各 設問別로 나타난 結果에 있어서 같은 傾向을 보였으므로 綜合하여 要約할 수 있었다.

本 研究는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影響을 주는 要因을 豫測하는 假說을 前提로 하고 副假說들을 세워 뒷받침하였다. 그러므로 研究된 內容을 解析함에 있어서 먼저 副假說에 관한 內容을 分析하고 다음에 綜合된 結果를 가지고 結論에서 主假說을 說明하고자 한다.

A. 養育態度 內容別 要因分析

1) 아버지의 關心

副假說; 1.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에 있어서 子女의 性別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아버지가 子女에 대하여 關心을 表現하는 것과 관련된 設問을 2가지 選定하였는데, 그것들은 ①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잘 의논하여 주신다.
② 나를 잘 돌보아 주시고 애기도 잘하여 주신다
로 하였다. ①은 子女에게 人格的 待遇를 하여주며 個性을 尊重하여 주는가를 뜻하며, ②는 子女를 보살핌에 細心하게 配慮하고 對話를 나누어주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表 3.4.5〉는 設問 ①과 ②의 結果에서 傾向이 같게 나타났으므로 ①의 結果만을 提示한 것이다.

〈表 3〉에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을 나타내는 점수가 아들은 2.24, 딸은 2.47점으로 아들과 딸 모두에게 關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아들 보다 0.23점 높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들은 딸에게 더 仔詳하게 대해주는 등 關心을 잘 表現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差異는 統計的으로 $P < .01$ 水準에서 有意하였다.

〈表 3〉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

- ①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잘 의논해 주신다
—결과제시
- ② 나를 잘 돌보아주시고, 애기도 잘 해주신다.

性	男 兒	女 兒
M	2.24	2.47
S.D.	.76	.65
F	24.27**	

** $P < .01$

〈表 4〉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對한 아버지의 學力別 關心

- ①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잘 의논해 주신다
—결과제시
- ② 나를 잘 돌보아주시고, 애기도 잘 해주신다.

學 力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大學院以上
男兒 M	1.88	1.98	2.21	2.28	2.34	2.40
S.D.	.60	.73	.85	.78	.71	.70
F	3.31**					
女兒 M	1.88	2.10	2.33	2.41	2.54	2.77
S.D.	.78	.64	.63	.64	.63	.50
F	7.25**					
첫째 M	2.50	1.79	2.06	2.30	2.46	2.63
S.D.	.50	.69	.83	.74	.70	.63
F	5.52**					
중간 M	1.50	2.04	2.17	2.29	2.39	2.54
S.D.	.50	.68	.73	.70	.65	.63
F	4.68**					
막내 M	2.00	2.13	2.24	2.35	2.47	2.58
S.D.	.71	.71	.65	.75	.68	.64
F	2.61*					

* $P < .05$, ** $P < .01$

아버지의 관심이 兒童變因인 性과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인 學力, 職業, 宗教가 어떻게 다르게 影響을 주는가 하는 것이 表 4, 5, 6, 7에 나타나 있다.

〈表 4〉에서 먼저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學力別 關心점수를 보면 學力이 높아질수록 男兒와 女兒 모두의 점수가 높아져서 아버지가 大學院以上인 경우에 아들은 2.40, 딸은 2.77점으로 가장 높았다($P < .01$).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學力別 關心 점수를 보면 역시 學力이 높아질수록 첫째, 중간, 막내아이 모두의 점수가 높아져서 아버지가 大學院以上인 경우에 첫째아이는 2.63, 중간아이는 2.54, 막내는 2.58점으로 가장 높았다($P < .01$, $P < .05$). 단, 예외로 無學의 경우에 첫째아이에 대한 關心점수는 2.50점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같은 集團의 중간, 막내 보다는 아주 높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傳統的 直系家族 制度下에서 長男 爲主의 思考方式이 無學인 아버지에게 더 適用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解析할 수 있다.

〈表 5, 6〉은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關心을 나타낸 것이다.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關心점수는 會社員의 경우는 男兒가 2.40, 女兒는 2.62점으로 가장 높았고, 農業의 경우는 男兒가 2.07, 女兒는 2.29점으로 其他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子女의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關心 점수는 設問①과 ②의 結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즉 設問①에 대해서는 첫째아이만 아버지가 會社員일 때 關心점수가 2.59점으로 가장 높았고, 商

〈表 5〉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關心

- ①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잘 의논해 주신다
- ② 나를 잘 돌보아주시고, 얘기도 잘 해 주신다.

職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男兒 M	2.07	2.22	2.23	2.36	2.40	1.82
S.D.	.77	.79	.76	.72	.70	.72
F			3.91**			
女兒 M	2.29	2.35	2.42	2.51	2.62	1.80
S.D.	.67	.70	.62	.66	.57	.75
F			2.81*			

* $P < .05$ ** $P < .01$

〈表 6〉 子女의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關心

- ①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잘 의논해 주신다.

職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첫째 M	2.21	2.33	2.18	2.50	2.59	1.67
S.D.	.81	.77	.77	.64	.63	.67
F			5.55**			
중간 M	2.14	2.24	2.26	2.42	2.41	1.80
S.D.	.74	.61	.65	.72	.64	.40
F			2.16			
막내 M	2.32	2.18	2.53	2.36	2.50	1.92
S.D.	.66	.94	.66	.72	.66	.83
F			1.99			

- ② 나를 잘 돌보아주시고, 얘기도 잘 해주신다.

職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첫째 M	2.18	2.22	2.25	2.43	2.43	2.00
S.D.	.72	.83	.69	.67	.65	.67
F			2.01			
중간 M	2.04	2.35	2.21	2.33	2.37	1.20
S.D.	.68	.65	.68	.72	.64	.40
F			4.51**			
막내 M	2.23	2.29	2.28	2.34	2.44	1.46
S.D.	.70	.90	.68	.69	.66	.63
F			4.05**			

** $P < .01$

〈表 7〉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 宗教別 關心

- ①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잘 의논해 주신다.

宗教	基督教	天主教	佛敎	儒敎	없음
男兒 M	2.42	2.32	2.31	1.67	2.11
S.D.	.64	.70	.71	.47	.82
F			3.68**		
女兒 M	2.58	2.46	2.43	1.00	2.44
S.D.	.60	.69	.68	.00	.62
F			2.29		
첫째 M	2.56	2.48	2.42	1.50	2.21
S.D.	.60	.69	.70	.50	.82
F			3.72**		
중간 M	2.46	2.21	2.28	.00	2.23
S.D.	.63	.69	.70	.00	.70
F			1.29		
막내 M	2.53	2.38	2.40	1.50	2.30
S.D.	.63	.70	.68	.50	.77
F			1.43		

** $P < .01$

業일 때 2.18점으로 가장 낮으며($P < .01$), 중간아이에 대한 것은 아무런 意味도 없었다. 그러나 設問②에 대해서는 첫째아이에 대한 것은 意味가 없었으며, 중간아이에 대한 것은 아버지가 會社員일 때 各各 2.37과 2.44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農業일 때 중간아이가 2.04,

막내가 2.23점으로 가장 낮았다($P < .01$).

設問①과 ②는 모두 아버지의 關心을 表現하는 行爲이라고 볼 수 있는데, 設問①은 人格의 待遇를 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와 같은 傳統의 家族生活 속에서 長男優待의 養育態度를 엿볼 수 있었으며, 設問②는 중간아이와 막내에 대해서 細心한 配慮를 하여 주는 것으로 보였다.

〈表 7〉의 設問①에 대한 結果에서 보면 아버지가 基督教人인 경우에 男兒(2.42)와 첫째아이(2.56)에 대해서 關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그러나 設問②에 대해서는 아무런 意味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養育參與

副假說; 2. 아버지의 子女養育에 대한 參與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아버지가 子女에 대하여 關心을 가지고 子女養育에 直接 參與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設問을 3가지 選定하였는데, 그것들은 ① 나에게 생일, 명절등에는 선물을 주신다. ② 집에 들어오실 때 간식을 잘 사오신다. ③ 나를 데리고 자주 외출하신다로 하였다. 아버지들이 子女와의 關係에서 行

〈表 8〉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參與

- ① 나에게 생일 명절 등에는 선물을 주신다—결과 제시
- ② 집에 들어오실 때 간식을 잘 사오신다.

性	男 兒	女 兒
M	2.19	2.35
S.D.	.79	.74
F	10.56**	

** $P < .01$

〈表 9〉 子女의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參與

- ① 나에게 생일 명절등에는 선물을 주신다—결과 제시
- ② 집에 들어오실 때 간식을 잘 사오신다.
- ③ 나를 데리고 자주 외출하신다.

出生順位	첫 째	중 間	막 내
M	2.36	2.23	2.17
S.D.	.74	.79	.78
F	5.09**		

** $P < .01$

〈表 10〉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學力別 養育參與

- ① 나에게 생일 명절 등에는 선물을 주신다—결과 제시
- ② 집에 들어오실 때 간식을 잘 사오신다.
- ③ 나를 데리고 자주 외출하신다.

學 力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大學院以上
男兒 M	1.50	1.76	1.95	2.15	2.37	2.55
S.D.	.50	.76	.75	.76	.76	.71
F	11.37**					
女兒 M	1.88	2.00	2.16	2.31	2.43	2.64
S.D.	.78	.76	.70	.73	.74	.58
F	5.13**					
첫째 M	2.50	1.84	1.94	2.30	2.44	2.69
S.D.	.50	.74	.70	.71	.73	.58
F	6.85**					
중간 M	1.67	1.81	1.97	2.26	2.37	2.54
S.D.	.75	.76	.76	.75	.76	.67
F	6.59**					
막내 M	1.50	1.87	2.20	2.25	2.33	2.50
S.D.	.50	.79	.71	.79	.76	.71
F	4.02**					

** $P < .01$

〈表 11〉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養育參與

- ① 나에게 생일 명절 등에는 선물을 주신다—결과 제시
- ③ 나를 데리고 자주 외출하신다.

職 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男兒 M	2.01	2.25	2.10	2.30	2.45	1.86
S.D.	.80	.60	.79	.81	.74	.76
F	4.74**					
女兒 M	2.32	2.13	2.31	2.30	2.58	1.80
S.D.	.75	.74	.74	.78	.61	.40
F	3.03*					

- ② 집에 들어오실 때 간식을 잘 사오신다.

男兒 M	1.92	2.08	2.01	2.00	2.28	1.73
S.D.	.78	.72	.81	.77	.69	.86
F	3.08**					
女兒 M	2.25	2.30	2.30	2.28	2.41	1.40
S.D.	.72	.62	.75	.75	.66	.49
F	2.10					

* $P < .05$ ** $P < 0.1$

動으로 보여주는 內容을 中心으로 選定한 問項들이었다.

〈表 8〉에서 보던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參與를 나타내는 점수가 아들은 2.19, 딸은 2.35점으로 높았으며, 딸에게 선물을 더 잘 주고 간식도 잘 사주는 것으로 보인다($P < .01$). 그러나 外

출발도와는 關係가 없었다.

〈表 9〉에서 아버지의 養育參與를 나타내는 점수는 첫째아이가 2.36, 중간아이가 2.23, 막내는 2.17점으로 첫째아이가 가장 높았고, 막내는 가장 낮았으며 그차이는 0.19점이나 되었다($P < .01$). 이러한 경향은 設問①, ②, ③에서 같게 나타났다. 그러나 各 設問別 平均점수를 보면 ①은 2.25, ②는 2.14, ③은 1.83점으로 선물을 주는 빈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간식을 사주는 것이며, 함께 외출하는 빈도는 가장 낮았고 저조한 점수였다.

〈表 10〉에서 보면 아버지의 學力이 높아질수록 男女兒의 점수가 높아졌는데, 아버지가 大學院以上인 경우 아들은 2.55, 딸은 2.64점으로 가장 높았다($P < .01$). 그리고 역시 아버지의 學力이 높아질수록, 大學院以上일 때, 첫째(2.69), 중간(2.54) 막내(2.50) 모두의 점수가 높았다($P < .01$). 단, 無學의 경우에는 예외로 첫째아이의 점수가 2.50점으로 아주 높았으며, 이것은 長男爲主의 思考가 作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子女의 性이나 出生順位를 막론하고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學力이 높아질수록 선물을 잘 주고 간식도 잘 사오며 자주 동반 외출도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表 11, 12, 13, 14〉는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養育參與를 나타낸 것이다.

〈表 11〉에서 設問①과 ③의 結果로 보면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養育參與가 會社員의 경우에 男兒가 2.45, 女兒가 2.5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職業은 男兒의 경우는 農業이 2.01, 女兒는 工業이 2.13점으로 가장 낮았다($P < .01$, $P < .05$). 즉 會社員인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선물을 잘 주고 자주 동반외출을 해주는 경향이다. 設問②의 結果에서는 男兒에게 會社員인 아버지가 간식을 잘 사주는 경향이 있었으며 2.48점으로 가장 높았고, 女兒에 대해서는 意味가 없었다.

〈表 12〉는 子女의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養育參與를 設問 ①, ②, ③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設問①의 아버지가 子女에게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會社員인 아버지가 첫째아이(2.56,

〈表 12〉 子女의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養育參與

① 나에게 생일 명절 등에는 선물을 주신다.

職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첫째	M	2.30	2.30	2.18	2.41	2.56	2.00
	S.D.	.78	.60	.84	.74	.60	.67
	F			2.73*			
중간	M	2.05	2.19	2.16	2.33	2.42	2.20
	S.D.	.79	.73	.76	.81	.74	.75
	F			1.91			
막내	M	2.12	2.00	2.21	2.09	2.59	1.62
	S.D.	.79	.60	.71	.81	.74	.62
	F			3.64**			

② 집에 들어오실 때 간식을 잘 사오신다.

職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첫째	M	2.14	2.22	2.23	2.29	2.34	1.89
	S.D.	.78	.68	.81	.78	.69	.74
	F			1.02			
중간	M	2.14	2.33	2.06	2.20	2.34	1.80
	S.D.	.74	.56	.78	.74	.65	.98
	F			1.52			
막내	M	1.92	1.73	2.08	2.00	2.38	1.46
	S.D.	.77	.75	.80	.76	.70	.75
	F			3.29**			

③ 나를 데리고 자주 외출하신다.

職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첫째	M	1.73	1.85	1.93	2.01	2.01	1.67
	S.D.	.71	.80	.74	.66	.68	.82
	F			1.82			
중간	M	1.59	1.81	1.76	1.92	2.00	1.20
	S.D.	.57	.66	.64	.73	.58	.40
	F			4.22**			
막내	M	1.63	1.73	1.89	1.77	2.13	1.31
	S.D.	.62	.75	.66	.57	.60	.46
	F			4.54**			

* $P < .05$ ** $P < .01$

$P < .05$)와 막내(2.59, $P < .01$)에게 잘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중간아이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職業에 따른 差異는 없었다. 設問②의 간식을 사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會社員인 경우 막내에게 있어서만 2.38점으로 높은 參與를 보였다($P < .01$). 첫째와 중간아이에 대한 職業別 差異는 아무 意味도 없었다. 設問의 자녀와 함께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아이(2.00, $P < .01$)와 막내(2.13, $P < .01$)에게 역시 會社員인 아버지가 가장 잘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以上の 세가지 設問에 있어서 막내에 대해서만은 아버지의 職業別 差異가 有意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선물을 주고 간식을 사오고 또는 외출을 함께 하는 것과 같은 配慮에 있어서는 위의 아이들보다 막내에게 더 關心을 가지고 參與하는 경향임을 엿볼 수 있다.

〈表 13〉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宗教別 養育參與

① 나에게 생일 명절 등에는 선물을 주신다.

宗 教	基督教	天主教	佛 教	儒 教	없음
男兒 M	2.36	2.27	2.24	2.00	2.07
S.D.	.77	.78	.77	.82	.81
F			2.43*		
女兒 M	2.60	2.50	2.27	1.00	2.24
S.D.	.61	.69	.82	.00	.69
F			5.57**		
첫째 M	2.57	2.63	2.37	2.00	2.18
S.D.	.70	.62	.71	.00	.76
F			4.43**		
중간 M	2.49	1.95	2.14	.00	2.22
S.D.	.70	.76	.85	.00	0.74
F			2.88*		
막내 M	2.38	2.38	2.26	1.50	1.93
S.D.	.62	.75	.80	.50	.79
F			3.86**		

*P<.05 **P<.01

〈表 13〉에서 設問①에 대한 結果를 보면, 아버지가 基督教人인 경우에 男兒(2.36, P<.05)와 女兒(2.60, P<.01)에게 선물을 잘 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첫째아이(2.63, P<.01)에게는 天主教人인 아버지, 중간아이(2.49, P<.05)에게는 基督教人인 아버지, 그리고 막내(2.38, P<.01)에게는 基督教과 天主教를 믿는 아버지가 똑같이 다른 宗教를 믿는 경우보다 선물을 잘 주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設問②의 간식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男兒와 첫째아이에 대해서만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아이들에게는 별로 意味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버지의 訓育

副假說; 3.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訓育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子女의 訓育에 대해서는 칭찬과 꾸중에 관한 질문으로, ① 내가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칭찬을 잘 하신다. ② 나를 꾸중하실 때가 많다고 하였다 생활하는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잘한 일과 못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지의 여부를 묻은 것이었다.

子女를 칭찬하는 것이 꾸중하는 것보다 兒童變因과 아버지變因의 作用을 덜 받는다고 解析할 수 있다.

〈表 14〉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訓育(칭찬)

① 내가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칭찬을 잘 하신다.

性	男 兒	女 兒
M	2.74	2.83
S.D.	.53	.44
F		8.76**

**P<.01

〈表 15〉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學力別 訓育(칭찬)

① 내가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칭찬을 잘 하신다.

學 力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大學院以上
男兒 M	2.25	2.58	2.69	2.74	2.80	2.80
S.D.	.83	.60	.56	.54	.45	.48
F			3.58**			
女兒 M	2.50	2.71	2.82	2.83	2.86	2.93
S.D.	.50	.58	.44	.45	.44	.26
F			2.03			
첫째 M	2.50	2.37	2.56	2.78	2.79	2.83
S.D.	.50	.67	.70	.49	.48	.47
F			3.26**			
중간 M	2.33	2.74	2.83	2.85	2.83	2.87
S.D.	.47	.56	.37	.42	.45	.33
F			1.90			
막내 M	2.38	2.58	2.73	2.83	2.89	2.92
S.D.	.86	.55	.38	.61	.31	.28
F			3.62**			

**P<.01

〈表 16〉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父의 宗教別 訓育(칭찬)

① 내가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칭찬을 잘 하신다.

宗 教	基督教	天主教	佛 教	儒 教	없음
男兒 M	2.79	2.77	2.76	3.00	2.69
S.D.	.44	.52	.52	.00	.57
F			1.04		
女兒 M	2.84	2.84	2.79	1.00	2.88
S.D.	.42	.36	.50	.00	.37
F			5.27**		
첫째 M	2.76	2.81	2.72	2.00	2.73
S.D.	.49	.47	.52	1.00	.56
F			1.18		
중간 M	2.83	2.79	2.80	.00	2.85
S.D.	.41	.52	.49	.00	.41
F			17.79**		
막내 M	2.90	2.79	2.79	3.00	2.71
S.D.	.30	.41	.51	.00	.55
F			1.12		

**P<.01

〈表 14〉에서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칭찬을 나타내는 점수를 보면 아들은 2.74, 딸은 2.83점으로 딸이 더 높았으며(P<.01), 아버지는 子女가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칭찬을 잘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15〉에서 아버지의 學力이 높아질수록 男兒(2.80), 첫째아이(2.83), 막내(2.92)에 대해서 더욱 칭찬을 잘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P < .01$). 단, 예외로 無學의 아버지가 첫째아이에 대해 칭찬해 주는 점수는 2.50점으로 높았다.

〈表 16〉에 無宗敎 아버지가 女兒(2.88)와 중간아이(2.85)에 대해서 더 칭찬을 잘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宗敎를 갖지 않은 아버지가 保守的이라고 解析할 수도 있다.

〈表 17.18〉에서 子女의 性과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꾸중을 나타내는 점수를 보면 아들은 2.19 딸은 2.41점으로 아들에게 더 꾸중하는 경향이었다($P < .01$).

〈表 19〉에서 아버지의 學力別 꾸중의 差異를 보면 女兒(1.88)와 중간아이(1.50)에 대해서 無學인 아버지가 꾸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며, 高卒인 아버지가 꾸중을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P < .05$).

〈表 20〉에서 보면 아버지가 女兒에게, 農工業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첫째아이에게 꾸중을 더 하는 경향이다($P < .05$).

〈表 21〉의 宗敎別 꾸중에 관한 점수에서는 性에 따른 差異는 無意味하였으며, 出生順位에 따른 差異에 있어서는 첫째아이의 경우에만 儒敎를 제외하고($N=1$) 無宗敎인 아버지가 꾸중을 많이 하는

〈表 17〉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訓育(꾸중)

② 나를 꾸중하실 때가 많다.

性	男 兒	女 兒
M	2.19	2.41
S.D.	.70	.69
F	22.63**	

(아니오의 점수가 3점임) ** $P < .01$

〈表 18〉 子女의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訓育(꾸중)

② 나를 꾸중하실 때가 많다.

出生順位	첫 째	중 간	막 내
M	2.31	2.20	2.36
S.D.	.69	.74	.65
F	3.90*		

(아니오의 점수가 3점임) * $P < .05$

〈表 19〉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學力別 訓育(꾸중)

② 나를 꾸중하실 때가 많다.

學 力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大學院以上
男兒 M	1.63	2.21	2.14	2.14	2.24	2.22
S.D.	.70	.66	.68	.72	.67	.73
F	1.44					
女兒 M	1.88	2.19	2.22	2.53	2.45	2.39
S.D.	.78	.78	.66	.65	.67	.67
F	3.03*					
첫째 M	2.00	2.00	2.25	2.38	2.31	2.38
S.D.	1.00	.79	.61	.70	.66	.70
F	1.16					
중간 M	1.50	2.16	2.24	2.29	2.27	2.18
S.D.	.50	.70	.74	.73	.73	.75
F	2.41*					
막내 M	1.88	2.26	2.34	2.36	2.47	2.38
S.D.	.78	.62	.58	.71	.60	.63
F	1.45					

(아니오의 점수가 3점임) * $P < .05$

〈表 20〉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훈육(꾸중)

② 나를 꾸중하실 때가 많다.

職 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男兒 M	2.19	2.33	2.17	2.19	2.17	2.00
S.D.	.72	.67	.72	.68	.67	.60
F	1.53					
女兒 M	2.38	2.30	2.44	2.43	2.40	2.40
S.D.	.70	.75	.64	.65	.75	.49
F	5.31*					
첫째 M	2.26	2.26	2.35	2.34	2.33	2.22
S.D.	.76	.75	.65	.68	.65	.63
F	4.48*					
중간 M	2.21	2.33	2.22	2.20	2.15	2.00
S.D.	.71	.71	.73	.71	.82	.63
F	3.74					
막내 M	2.38	2.45	2.28	2.43	2.44	2.00
S.D.	.65	.50	.71	.59	.66	.55
F	1.23					

(아니오의 점수가 3점임) * $P < .05$

〈表 21〉 子女의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宗敎別 訓育(꾸중)

② 나를 꾸중하실 때가 많다.

宗 敎	基督敎	天主敎	佛 敎	儒 敎	없음
첫째 M	2.39	2.63	2.32	2.00	2.20
S.D.	.64	.55	.66	.00	.75
F	2.67*				
중간 M	2.29	2.05	2.15	.00	2.23
S.D.	.76	.83	.77	.00	.68
F	1.54				
막내 M	2.45	2.46	2.35	1.50	2.33
S.D.	.63	.50	.69	.50	.64
F	1.28				

(아니오의 점수가 3점임) * $P < .05$

편이며 天主教信者 아버지는 꾸중을 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P < .05$).

以上の 結果를 보면 子女를 칭찬하는 것이 꾸중하는 것보다 兒童變因과 아버지變因의 作用을 덜 받는다고 解析할 수 있다.

4) 아버지의 養育方式

副假說 ; 4.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方式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아버지의 養育方式에 대해서 子女에게 대하는

<表 22>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方式(許容的)

①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

性	男 兒	女 兒
M	1.61	1.81
S.D.	.62	.67
F	22.74**	

** $P < .01$

<表 23>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學力別 養育方式(許容的)

①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

學 力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大學院以上
M	1.78	1.79	1.80	1.98	2.00	2.00
男兒 S.D.	.59	.62	.71	.71	.61	.71
F	3.93**					
M	1.43	1.55	1.64	1.74	1.81	2.25
女兒 S.D.	.56	.62	.60	.62	.61	.66
F	3.33**					

** $P < .01$

態度를 許容的 態度와 拒否的 態度의 두가지로 關聯있는 問項을 各各 選定하였다. 設問 ①은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 ②는 나에게 엄격하고 하지 말라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子女에 대한 父母의 養育態度에는 여러가지 類型이 있으나 앞에서 밝혀진 內容을 제외하고 設問 ①과 ②를 定한 것이다 <表 22>에 의하면 아버지가 子女에게 許容하는 점수는 아들은 1.61, 딸이 1.81점으로 다른 設問의 結果보다 훨씬 낮은 편이며, 딸의 要求를 더 잘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딸이 0.20점이나 높았다($P < .01$).

<表 23>에서 아버지의 學力別 許容을 나타내는

<表 24>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養育方式(許容的)

①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

職 業	農業	工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其他
M	1.77	1.80	1.94	1.89	2.00	1.66
男兒 S.D.	.67	.63	.70	.57	.74	.64
F	2.23*					
M	1.54	1.56	2.00	1.74	1.74	1.54
女兒 S.D.	.64	.58	.63	.63	.61	.59
F	2.18					
M	1.56	1.61	1.86	1.78	1.93	1.65
첫째 S.D.	.62	.64	.74	.79	.60	.66
F	2.59*					
M	1.69	1.79	1.71	2.20	1.92	1.65
중간 S.D.	.59	.65	.55	.40	.66	.66
F	2.10					
M	1.73	1.59	2.08	1.74	1.82	1.58
막내 S.D.	.61	.61	.73	.61	.57	.57
F	1.62					

* $P < .05$

<表 25>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宗教別 養育方式(許容的)

① 나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

宗 教	基督教	天主教	佛 教	儒 教	없음
M	1.89	1.62	1.78	1.79	1.67
男兒 S.D.	.71	.61	.62	.69	.47
F	2.54*				
M	1.62	1.59	1.64	1.00	1.58
女兒 S.D.	.62	.61	.57	.00	.66
F	1.44				

* $P < .05$

<表 26>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方式(拒否的)

② 나에게 엄격하고 하지 말라는 일이 많다.

性	男 兒	女 兒
M	1.87	2.08
S.D.	.73	.70
F	20.27**	

(아니오가 3점임) ** $P < .01$

점수를 보면 學力이 높을수록 男兒(2.00)에게는 大卒以上の 아버지가, 그리고 女兒(2.25)에게는 大學院以上の 아버지가 子女의 要求를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P < .01$). 그러나 出生順位에 대해서는 아무 意味도 나타나지 않았다.

<表 24>는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대한 아버지의 職業別 養育方式중 許容을 나타낸 것이다. 會社員 아버지가 男兒(2.00)와 첫째아이(1.93)의

要求를 가장 잘 들어주는 것으로 解析된다($P < .05$).

〈表 25〉에서 아버지의 宗教別 養育方式중 許容을 나타내는 점수는 基督教人 아버지의 경우에 男兒(1.89)가 높았다($P < .05$). 즉 基督教人 아버지가 男兒의 要求를 잘 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表 26〉은 子女의 性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方式중 拒否의 態度를 나타내는데, 男兒(1.87)에게 더 엄격하고 하지말라는 일이 많고 女兒(2.08)에게는 덜 엄격한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

IV. 要約 및 結論

1. 研究의 要約

本 研究에서 밝히고자 한 目的은 아버지-子女 關係를 通하여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影響을 주는 諸 要因을 찾아내는 것이었으며, 특히 子女의 性과 出生順位에 따라서 아버지의 變因들이 子女에 대한 그의 養育態度에 다르게 作用하는가를 알아 보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 研究는 李와 鄭(1979)의 研究에서 일부 밝혀진 結論, 즉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度는 兒童의 性, 그리고 아버지의 教育程度, 職業, 宗教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더 具體的으로 確認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先行研究의 結果를 基本으로 하여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影響을 주는 要因에 관하여 假說을 세우고, 그 假說을 뒷받침할 수 있는 副假說을 設定하였는데, 그것들은 養育態度에 關聯되는 行動을 關心度, 養育參與, 訓育, 養育方式의 4가지 內容으로 區分하여 各各에 作用하는 要因을 찾아 내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研究된 結果를 副假說에 따라 要約하고, 假說에 대한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副假說; 1.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아들보다 딸의 意見을 尊重해 주고, 잘 돌보아주며(아들 $M=2.24$, 딸 $M=2.47$, $P < .01$), 아버지가 學力이 높아질수록 男女兒 모두, 그

리고 出生順位에 관계없이 첫째, 중간, 막내 모두에게 높은 關心을 보였다(大學院以上: 男兒 2.40, 女兒 2.77, $P < .01$; 첫째아이 2.63, 중간아이 2.54, $P < .01$, 막내 2.58, $P < .05$). 그러나 아버지가 無學인 경우에 첫째아이에 대한 關心은 例外로 높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傳統的 思考方式인 長男爲主의 생각이 作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會社員일 때 男女兒 모두에게 높은 關心을 보였고(男兒 2.40, $P < .01$, 女兒 2.62, $P < .05$), 첫째아이(2.59, $P < .01$)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잘 의논해주었으며, 중간아이(2.37, $P < .01$)와 막내(2.44, $P < .01$)를 잘 돌보아주고 대화를 잘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宗教가 基督教일 때 男兒(2.42, $P < .01$)와 첫째아이(2.56, $P < .01$)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잘 의논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以上の 研究結果로써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라는 假說이 證明되었다.

副假說; 2. 아버지의 子女養育에 대한 參與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 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아들보다 딸에게 더 선물을 잘 주고 간식도 잘 사주며(아들 2.19, 딸 2.35, $P < .01$), 外出빈도와 子女의 性과는 相關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出生順位에 있어서 첫째, 중간, 막내의 순서대로 子女에게 선물을 잘 주고, 간식을 잘 사주며, 함께 外出도 잘 해주었다(첫째 2.36, 중간 2.23, 막내 2.17, $P < .01$). 그러나 外出에 관한 平均점수는 1.83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아버지의 學力이 높아질수록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첫째, 중간, 막내에게 선물, 간식, 외출의 養育과 關聯된 問題에 參與를 잘 해주었다(大學院以上: 男兒 2.55, 女兒 2.64, $P < .01$; 첫째 2.69, 중간 2.54, 막내 2.50, $P < .01$). 會社員인 아버지가 다른 職業을 가진 아버지보다 男兒(2.45, $P < .01$)와 女兒(2.58, $P < .05$)에게 선물을 잘 주고, 외출도 함께 해주는데, 간식을 잘 사주는 것은 男兒(2.28, $P < .01$)와만 關係가 있었다. 또한 會社員인 아버지가 첫째(2.56, $P < .05$)와 막내(2.59,

$P < .01$)에게 선물을 잘 주고, 간식은 막내(2.38, $P < .01$)에게 잘 사주며, 중간아이(2.00, $P < .01$)와 막내(2.13, $P < .01$)를 잘 데리고 외출하는 경향이였다. 宗教와의 關聯을 보면 基督教人인 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일에 있어서 性 및 出生順位에 關係없이 모두에게 잘 주는 경향이였다(男兒 2.36 $P < .05$, 女兒 2.60, $P < .01$; 첫째 2.57, $P < .01$, 中間 2.49, $P < .05$, 막내 2.38, $P < .01$).

以上の 研究結果로써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子女養育에 대한 參與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라는 假說이 證明되었다.

副假說; 3.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訓育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아들(2.74)보다 딸(2.83)에게 칭찬을 잘 해주며, 꾸중은 덜 한다고 볼 수 있다($P < .01$). 칭찬의 경우는 出生順位와 關係가 없으나 꾸중의 경우는 중간아이(2.20)를 더 나무라는 편이며 막내(2.36)를 꾸중하는 일은 적은 경향이였다($P < .05$).

아버지의 學力이 높을수록, 大卒以上の 아버지가 男兒와 첫째아이, 막내에게 잘 칭찬해주며(男兒 2.80, 첫째 2.83, 막내 2.92, $P < .01$), 첫째아이에게는 無學의 아버지도 칭찬을 잘 하는 편이였다. 한편 꾸중의 경우는 女兒와 중간아이하고만 有意한 關係가 있는데, 學力이 낮을 때 꾸중을 잘 하는 경향이였으나 高卒 아버지가 꾸중을 가장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職業과 子女를 칭찬하는 문제는 關係가 없었으나 꾸중하는 것은 工業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女兒에게 더 꾸중을 하였으며(2.30, $P < .05$) 農工業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첫째아이를 더 꾸중하는 경향이였다(2.26, $P < .05$). 아버지가 宗教를 갖지 않았을 때 女兒(2.88, $P < .01$)와 중간아이(2.85, $P < .01$)를 더 칭찬해주었으며, 天主教를 믿는 아버지가 첫째아이에게는 꾸중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3, $P < .05$).

以上の 研究結果로써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訓育(칭찬 및 꾸중)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

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라는 假說이 證明되었다.

副假說; 4.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方式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아들보다 딸의 要求를 더 잘 들어주는 경향이며(아들 1.61, 딸 1.81, $P < .01$), 딸보다 아들에게 더 엄격하고 拒否의이였다(아들 1.87, 딸 2.08, $P < .01$). 그리고 아버지의 養育方式이 許容의이거나 拒否의이거나 子女의 出生順位와는 별 關係가 없었다.

아버지의 學力이 높을수록, 大卒以上일 때 男兒 兒 모두의 要求를 잘 들어주었으며(男兒 2.00, 女兒 2.25, $P < .01$), 아버지가 會社員일 때 男兒와 첫째아이의 要求를 잘 들어주었다(男兒 2.00, 첫째아이 1.93, $P < 0.5$). 또한 基督教信者인 아버지가 男兒의 要求를 잘 들어주었으며(1.89, $P < .05$) 出生順位와는 關係가 없었다. 아버지의 拒否의 態度와 學力, 職業, 宗教와는 아무 關係가 없었다.

以上の 研究結果로써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方式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이 달리 作用할 것이라는 假說이 證明되었다.

2. 結 論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있어서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에 따라 아버지變因, 즉 年齡, 學力, 職業, 宗教가 달리 作用할 것이라는 假說을 基礎로 研究하였다.

그 結果,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兒童變因인 性과 出生順位, 그리고 아버지變因인 學力, 職業, 宗教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요인들이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미친 影響을 具體的으로 記述하면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높은 關心을 보였고, 學力이 높은 아버지, 會社員인 아버지, 基督教을 믿는 아버지가 子女에게 좋은 養育態度를 보였다.

그리고 위에서 言及된 아버지의 養育態度에 影響을 주는 諸要因들을 養育內容別로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A.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關心”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1) 子女의 性, 子女의 性 및 出生順位와 關聯시킨 아버지의 2) 學力, 3) 職業이었다.

B.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參與”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子女의 1) 性 2) 出生順位 그리고 性 및 出生順位를 中心으로 한 아버지의 3) 學力 4) 職業 5) 宗教이었다.

C.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訓育”(칭찬, 꾸중)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子女의 1) 性 그리고 子女의 出生順位를 中心으로 한 아버지의 2) 學力, 3) 宗教이었다.

D. 子女에 대한 아버지의 “養育方式”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許容的態度에 있어서는 子女의 1) 性 그리고 性を 중심으로 한 아버지의 2) 學力이었고 拒否的態度에 있어서는 子女의 1) 性 뿐이었다.

E. 아버지의 年齡은 子女에 대한 養育態도와 아무 相關이 없었다.

參 考 文 獻

- 金光雄, 父子關係에 따른 男兒의 人性特徵에 關한 研究, 兒童研究, 淑明女子大學校, 3권, 1978, 7~20.
- 徐鳳延, 子女에 對한 父親의 影響, 李泰喆博士 奉甲記念論叢, 1973.
- 劉永珠, 家族關係學, 敎文社, 1980.
- 李기현, 어머니의 育兒態도가 兒令의 適應性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74.
- 李男基, 家族의 構造의 缺損이 兒童의 性格特性에 미치는 影響, 一父缺損 家庭의 兒童을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79.
- 李恩順, 아버지의 役割에 關한 父-子女間의 相關 研究, 梨花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74.
- 李喜子·鄭鈴淑, 아버지의 養育態度 및 關心度와 子女의 人性과의 相關研究, 대한 가정학회지 17권 2호, 1976, 83~105.
- 趙福姬, 出生順位에 關한 研究의 考察, 대한 가정학회지, 16권 4호, 1978, 67~74.
- 鄭貞順, 金明分, 韓國 어머니와 美國 어머니와의 養育態度에 對한 比較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0권 2호, 1972, 78~86.

李藝英·車載浩, 아들과 딸의 男性-女性性에 影響을 주는 어머니의 養育態度次元, 韓國心理學會誌, 2권 1호, 1974, 29~40.

李正淑, 父親不在가 子女의 成長에 끼치는 影響, 대한 가정학회지 17권 4호, 1979, 75~93.

Altus, W., Birth order and academic primogeni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1965, 872-876.

Becker, W.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L., & Hoffman, L.W.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I),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Breckenridge, M. E., & Vincent, E.L., *Child Development 5th*, Saunders Company, 1966.

Breland, H.M., Birth Order Effects, A Reply to Schooler, *Psychological Bulletin*, 80, 1973, 210-212.

Brim, O.G., The Parent-Child Relation as A Social System, 1, Parent and Child Roles, *Child Development*, 28 (3), 1952, 343-394.

Bronefenbrenner, U., *Discussion of Papers in Symposium; Father Influence in the Family*, Merrill-Palmer Quart., 7(2), 1961(a)

Burchinal, L.G., Mothers' & Fathers' Differences in Parental Acceptance of Children for Controlled Comparisons Based on Parent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2, 1958, 6-24.

Craig, G.J., *Child Development*, Prentice-Hall, 1979.

Emmerich, W., Variations in the Parental Role as A Function of the Parent's Sex and the Child's Sex and Age, *Merrill-Palmer Quart.*, 8, 1962, 3-11.

Glass, D., Neulinger, J. & Bim O., Birth Order, Verbal Intelligence, and Educational Aspiration. *Child Development*, 45, 1974, 807-811.

- Goodenough, E.W., Interest in Persons as an Aspect of Sex Differences in the Early Years.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55, 1957, 287-323.
- Hoffman, M.L., Power Assertion by the Parent and its Impac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31, 1960, 129-143.
- Hoffman, M.L. & Saltzstein, H.D.,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45-57.
- Hubert, M.A.G. & Britton, J.H., Attitudes and Practices of Mothers' Rearing Their Children from Birth to the Age of Two Years. *Journal of Home Economics*.
- Kagan, J., & Lem Kin, J., The Child's Differential Perception of Parental Abilities,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61, 1960, 440-447.
- Kohlberg, L.,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A. Goslin(eds), *Handb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1969.
- Lamb, M.E.,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1976.
- Maccoby, E.E. & Ray L., Differential Cognitive Abilities, *Final Report, U.S.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1040*, 1962.
- Medinnus, G.R., An Examination of Social Correlates of Sociometric Status in a First Grade Group,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1, 1962a, 3-13.
- Medinnus, G.R. & Johnson, R.C.,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John Wiley & Son's, 2nd, 1976.
- Monroe, R. & Monnore, R., Obedience among Children in an East African Socie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1972, 395-399.
- Mussen, P.H. & Rutherford, E.,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al Personality in Relation to Young Children's Sex-Role Preferences, *Child Development*, 34, 1963, 589-609.
- Peterson, D.R., et al Parental Attitudes an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30, 1959, 119-130.
- Schachter, S., *The Psychology of Affiliation*,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59.
- Sears, R.R., Maccoby, E.E. & Levin, H., *Patterns of Childrearing*, Evanston, Ill, Row Peterson, 1957.
- Sears, R.R., Rau, L & Alpert, R., *Identification and Child Rearing*, Standford, Calif.,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65(b).
- Stein, P.J., Richman, J. & Hannon, N., *The Family*, Addison-Wesley, 1977.
- Ston, L.J., S Church, J., *Childhood and Adolescence* (2nd ed.), New York, Random House, 1980.
- Sutton-Smith, B & Rosenberg, B.G., *The Sibling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0.
- Williamson, R.C.,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John Wiley & Sons, 1972.
- Winder, C.L. & Rau, L., Parental Attitudes Associal Deviance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64, 1962, 418-424.